

## ‘경남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선정!

-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혜택
  - 남부 내륙철도 개통과 연계한 KTX통영역세권의 체계적 개발 첫발
  - 위케이션\*을 주도하는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 재도약 발판
- \*위케이션(workcation) :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함께한다는 의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경상남도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 7일 종합평가를 거쳐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이하 ‘투자선도지구’라 함)는 국토교통부가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국토부에서 잠재력을 갖춘 지방 중소도시의 철도역 및 철도역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정비계획을 광역지자체(7개도)로부터 1곳씩을 신청받아 서류심사,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통영시와, 속초시, 경주시 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경남도는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의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국토부 평가에 대비하여 관계전문가를 구성하고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통영시,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 모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은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동시에 역세권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통영시 용남면, 광도면 일원 30만 1,311㎡(약 9만 평) 규모의

부지에 역세권 및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그 배후단지에는 복합환승센터 및 웰니스 지역으로 거점, 해양관광(마리나)등 주상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지방비 300억 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4,031억 원, 국가철도공단(KR) 2,234억 원 등 총 6,565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1,994억 원, 고용 창출은 7,4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 “남부내륙철도 KTX개통으로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시 발생할 미래 위케이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KTX통영역세권 개발은,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과 윤충환 주무관(055-211-61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상남도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 위치도**



**□ 조감도**



**사업개요**

- ▶ 사업명 : 경상남도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 ▶ 사업기간 : 2022 ~ 2030년(9년)
- ▶ 사업위치 :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1002-1 일원(301,311㎡)
- ▶ 사업비 : 총6,565억원(지방비 300, 한국토지주택공사 4,031, 한국철도공단 2,234)
- ▶ 고용규모 : 7,401명(건설단계 : 4,464명, 운영단계 2,937명)
- ▶ 사업내용 : 역세권 및 배후(이주)단지 부지조성, 기반시설 구축  
복합환승센터 및 웰니스 지역으로 거점 조성  
해양관광(마리나)/주거/업무/상업 복합시설